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12. 2.(목)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담당자	• 과장 조창선, 사무관 김태동, 주무관 정영화 • ☎ (051)400-4280, 4282		
보도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남극 해양조사, 무인장비로 더 정밀하게

- 제3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해양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태성)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해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극지연구소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등을 활용하여 2017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부근의 수심, 해수흐름, 조석 등에 대한 해양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세종과학기지 부근까지 확대하였다.

이번 3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해양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선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얇은 해역까지 조사하기 위해 무인조사선, 무인항공기 등 무인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리안소만(小灣), 아드레이소만(小灣) 등 얇은 해역의 해저지형을 속속들이 조사해 우리 남극 연구의 중추지인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도가 완성되면 연구를 위한 조사장비를 해저나 연안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며, 해상으로 이동할 때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남극 해양조사는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확산되는 등 위중한 상황에서도, 남극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연구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라며,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도가 완성되면 글로벌 해양영토인 남극에 대한 국가 해양 연구의 지원과 극지 해상교통 안전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남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활동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남극 해양조사 지역





무인조사선



무인항공기